

2024 년 11 월 3 일 “(생명의 공동체 12) 공동체의 울레가 세워지기까지”(삼상 30:1-6; 21-26)

BCE 1000 년 경에 유대 땅의 인물 다윗의 공동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윗의 일생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이를 시기한 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다하여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20 대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10 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한 자들이었습니다(삼상 22:2 ‘압제 받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오랜 시간 위기를 함께 겪었지만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 적국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망명하여 살고 있던 시글락을 며칠간 비우고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침입하여 아내들, 아이들, 노인까지 잡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형제들이 다윗을 돌려 치자고 합니다.

곤경에 빠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v.6 후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600 명의 형제들과 아말렉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이백명이 낙오했습니다. 그래서 사백명만 출정하게 되는데, 아말렉을 찾고 싸움에 승리하여 가족들을 모두 구해오고 많은 전리품도 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브솔 시내에 이르니 낙오했던 이백명이 반겼습니다. 이제 위기의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공동체 안에서 내부 이슈가 돌발했습니다.

[2] 내부 이슈 발생과 회복

사백 명 중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이백명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라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첨예한 대립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다윗의 의견에 합의를 이루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울레와 규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법이 제정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공동체의 중요한 영적 기반이 구축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의견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세워진 이 울레는 앞으로 짊어질 40 년 왕국에서도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미숙한 공동체 생활을 해왔지만 이 시점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공동체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쉽, 사백명이 대신 싸워준 이타심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점들이 있어도, 자기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공동체는 만나는

과정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다윗이 있으니까, 사백명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단점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쉽게 분노하고, 자기중심적 속셈 아래 공평하게 나누자 하고요. 그러나 '우린 이런 단점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어' 라며 허투루 결론을 맺지 않고 자신들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자각할 때, 이들에겐 새로운 앞날을 내다보며 나갈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3)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적 마음과 셈이 있을지라도 다윗 공동체와 같이 서로 연결된 우리임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의 과거나 현재의 공동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봅시다. 장단점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었고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